

맛있는 농업 & 돈 되는 농업 & 재밌는 농업

팜&마켓

magazine

파워인터뷰

농촌진흥청 윤종철 차장

베스트농업기술센터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이재중 소장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신동진 소장

연구현장 & 청년농업인

감자 육종가 강원대 임영석 교수

이천시 4h연합회 이정남 회장

귀농 청년농업인 & 선도농가

당진, 꽃양꽃색 청년농업인 친환경 꽃

나주 김병오 세지멜론연합회장 멜론 최곳값

농업동향 & 고랭지 여름무

주경배나무이/갯기름나물/알타킹

농촌진흥기관

갈퀴덩굴/꼭두서니/프리지어/기후변화배재배지

천마/마늘바이러스/과수화상병/곰취잘록병

바나나/용과/오이/배/ 토마토/사과수형

연꽃/농촌치유관광/냉이파강회



2023 MARCH 03
www.팜&마켓매거진.com

NAVER DUM

뉴스검색 제휴



ISSN 2465-8820



2기작 노지재배 적합 ‘통일’, ‘골든킹’ 인기

감자 육종가 강원대학교 임영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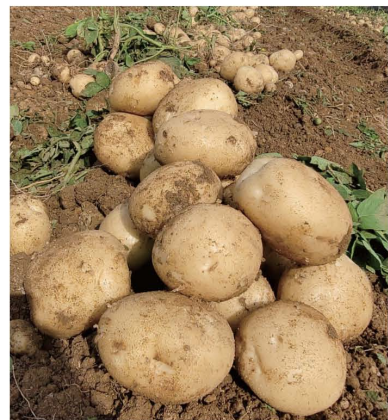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감자를 꼽으라면 단연 ‘수미’ 감자다. 이름도 그렇고 재배 규모나 역사를 봐도 국산 품종일 것 같지만, ‘수미’는 미국 품종이다. 이를 대체하면서도 맛 좋고 2기작 노지 재배가 가능한 국산 품종이 현장에 보급 중이다. 강원대학교 임영석 교수가 개발한 ‘통일’, ‘골든킹’ 감자다.

2월이면 남쪽 해안지역부터 노지감자 농사가 시작된다. 주산지 중 하나인 전남 보성 회천지역도 2월 내내 노지 봄 감자 파종이 한창이다. 이곳에서 최근 많이 재배하는 감자품종이 ‘통일’이다. 보성 회천에서 4~5년간 지역 적응성 시험을 거친 검증받은 품종이다.

무난한 편이던 감자 농사가 생육 불량을 겪게 된 건 최근의 이상기후 때문이다. 지역 농가들에 따르면 주 품종인 수미의 수확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대과비율이 크게 줄었다. 대부분이 봄 농사로 노지감자를 하고 있는데, 쉽게 작물을 바꿀 수도 없고 수미를 대체할 품종도 마땅치 않아 농가의 고민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통일’ 감자다. 품종을 개발한 임영석 강원대 생명건강공학과 교수는 국내 기후에 최적화된 품종이라고 말한다.

“‘통일’ 감자는 내륙과 해안지역에 관계없이 국내 어디서든 재배할 수 있습니다. 노지 재배에 강한 품종이에요. 봄, 여름, 가을에 노지 재배가 가능한데 봄·가을 2기작을 할 수도 있고, 여름 노지 재배와 시장 가격이 잘 나오는 겨울 무가온 시설재배 2기작도 가능합니다.”



▲ 국내 환경에서 사계절 무가온 재배가 가능한 감자 품종을 육종한 강원대학교 임영석 교수.



◀ ‘골든킹’ 감자는 다수확할 수 있고, 각종 병에 강해 경제성이 우수하다.

특히 ‘통일’ 감자는 가을 재배 수확성이 좋다. 1ha 당 37t 이상 수확할 수 있어 수미보다 50% 정도 더 나오고, 대과비율을 뜻하는 상서율도 평균 87%로 수미 감자의 70%보다 높다.

‘통일’ 감자, 조기출하 할 수 있어 농가 만족

농가들에 따르면 ‘수미’ 감자 2기작에서 뒷그루 감자를 늦여름에 심으면 더위에 약해 다수확이 어렵다. 고온에 약한 특성 때문이다. 전남 보성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변남준 씨는 ‘통일’ 감자는 고온기에 심어도 생육이 무난하다고 말했다.

“여름에 심어 가을에 수확하는 감자의 수확량이 자꾸 줄어 농가들의 걱정이 컸어요. ‘통일’ 품종으로 바꾸고서는 초기생육이 좋고 수확량도 만족스럽게 나옵니다. 상서율이 높다 보니 같은 면적에 재배해도 농가 소득이 더 나와요.”

겨울 무가온 시설재배에선 조기출하가 가능하다. 같은 시기에 심어도 수미보다 2주 이른 1월 중순에 ‘통일’ 감자를 수확할 수 있다. 그만큼 봄 감자를 일찍 파종할 수 있으니 봄 감자 역시 한발 앞서 출하해 좋은 값을 받는 게 가능하다. 임 교수는 노지 재배 물량이 시설재배만큼 외관이 깨끗한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유통소비 시장에서 노지감자보다 시설재배를 선호하는 건 껍질이 밝은색을 띄기 때문인데, ‘통일’ 감자는 노지에 심어도 껍질 색이 밝아요. 부리가 깊이 내려 감자가 땅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 겉이 녹색으로 변하는 청감자도 거의 없습니다.”

‘골든킹’ 감자, 대과종이면서 가공에 잘 맞아

임 교수가 개발한 품종 중에는 가공용 감자도 있다. 덩고 건조한 날씨에 강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세력이 약해지지 않는 ‘골든킹’ 감자이다.

이 품종의 가장 큰 장점은 대과종이라는 점이다. 열매




임 교수가 개발한 ‘골든킹’, ‘통일’ 감자는 기존 품종보다 생육기간이 짧아, 같은 시기에 심어도 조기 출하할 수 있다.

가 크면서 단위 면적당 수량이 많이 나오고 전형적인 가공용 감자 모양인 계란형을 띤다. 속이 선명한 노란색인 점도 감자 칩, 감자튀김 등의 가공에 유리하다. 병해충에도 강한 편이라 재배하기 까다롭지 않다.

‘골든킹’ 감자는 ‘통일’ 감자처럼 휴면기간이 짧아서 (50일 정도) 남부지역에서 노지 2기작 할 수 있는 품종이다. 겨울 무가온 시설에 비슷한 시기에 심는다면 수미 감자보다 열흘 먼저 출하할 수 있다.

기능성 물질로는 피부 염증 억제, 콜라겐 생성, 해독 등 항산화 작용을 하는 시링산(syringi acid)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임 교수는 기존 품종과는 다른 기능성과 가공성이 있어 전문 가공업체 등에서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골든킹’ 감자는 고온과 저온, 병해충 등 최근 악화된 재배환경에서도 품질과 수량이 안정적입니다. 가공성이 있는 등 장점이 분명하지요. 두 품종 모두 생육기간이 짧은 편이라 날씨 변수에도 안심하고 2기작 할 수 있습니다. 외국 품종을 대체하면서 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줄 거라 봅니다.” 

최서임 기자 farmmarket2@gmail.com